

# 화합하려면 구분에서 벗어나라

## 박재현 교수 '한국근대불교의 타자들'에서 주장

불법(佛法)은 불이법(不二法)이다. 상대적 차별 없는 절대적 평등을 바탕으로 진리를 설하는 불교지만 실정은 어떻게?

근대에서 이관사관의 갈등은 비구·대처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작금에는 출·재가자가 단순한 구분을 넘어 경계로 굳어져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 서야 안 되겠으나, 구분의 차별로 이어져 대립과 반목이 길어질수록 화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가 <한국근대불교의 타자들>(푸른역사)에서 출가자와 재가자, 이관과 사관에서 비롯된 비구·대처 등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근현대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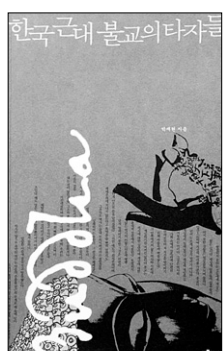
### # '대처' 통한 근대사 재인식

근대까지 대처(帶妻)는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의 영향으로 간주해 말하기조차 꺼리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서야 불교의 근대화 몸짓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재현 교수는 "이제 수세적 방어 논리가 아닌 적극적 자세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불교를 다루는 학문(불교학 선행 사학 철학 종교학)의 연구방법이 대체로 역사학적 시각과 문제의식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대처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성과를 역시 보는 시각은 대응조야하다"고 지적했다.

'대처=왜색불교의 산물'이라는 등식은 비구·대처의 갈등을 일반



박재현 교수와 그가 발간한 <한국근대불교의 타자들>

불교와 민족불교의 대결구도로 인식했다. 근대 불교학 연구물의 대다수가 민족사나 교단사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철학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박재현 교수는 "역사학적 시각과 문제의식을 무비판적으로 불교에 적용하다보면 역사학계의 근대성 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껴가기 어렵다"며 주장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은 '반쪽'으로 표현된다. 친일·사회주의·월북 등 낙인이 찍혀 평가의 기회조차 박탈된 걸출한 인사들이 '반쪽' 시비의 희생자들이었다.

박재현 교수는 "근대불교는 반쪽성을 여실히 반영한다"며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관·비구승이 주도한 근본주의적 개혁노선과 사관·대처승들이 주도한 현실반영적인 유연한 개혁노선으로 양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관·비구승과 사관·대처승의 대립은 이승만 정권시절 불교정화로 이어졌고, 정화 후 독신 비구승단

이 한국불교의 주류로 등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불교사 전체로 볼 때 1954~1962년의 정화는 반쪽의 역사가 굳어지는 과정"이라며 "대처논란의 본질은 종교가 사회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재가자' 통한 승가 재구성

1920년대 시작된 임제종운동은 일제강점기 항일과 민족의 상징이었다. 임제종은 선학원과 조선불교차 박탈된 걸출한 인사들이 '반쪽'됐다.

박재현 교수는 "임제종-선학원-조계종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비구승이 차별화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누군가를 타자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비구승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타자화된 것은 대처만이 아니었다. 재가자도 그랬다.

지금은 출가자의 전유물로 인식돼 버린 선원만 해도 1950년대까지는 출·재가 구분이 없던 공간이었다.

1924년 수덕사 능인선원 동안거 방합록(안거 때 동참자의 성명과 소입 등을 적은 기록)에는 36세의 김상온과 연령 미상의 송진정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1936년 건성암선원의 방합록에는 66세의 이대원행 거사가 증진급 선방 수좌들이나 말을 수 있었던 선덕(禪德)의 소입으로 기록돼 있었다. 범어사 금어선원, 지지사 천불선원, 도리사 태고선원, 봉은사 선방 등 다른 선원에서도 재가자들은 화주를 비롯한 여러 소임을 맡았으며 안거했다.

박 교수는 "해인사 퇴실선원의 방합록을 보면 1961년 이후 방합록에서 화주나 원주의 직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화를 거치면서 선원과 사찰의 경계가 의미해지고 선원 수좌들이 사찰 운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수좌들이 사찰운영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선원이 독립체제로 유지될 필요가 없어졌고, 화주의 역할 역시 불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박재현 교수는 "선방에서 재가자들이 배제되면서 젊고 유능한 재가자들이 불교에서 급속히 멀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고려문화재 한자리에 '고려실' 신설

##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발해실 등 상설전시실 개편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에 고려실이 신설돼 고려시대 문화재를 한자리에 볼 수 있게 됐다. 또, 통일신라·발해실이 확대되는 등 상설전시실이 개편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24일 박물관 1층 역사길에서 '일백삼십우리역사'를 주제로 상설전시실 개편을 기념하는 개막식을 갖고, 이를 고려왕조의 개국기념일인 25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2005년 10월 28일 신축 개관한 웅산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는 고고학과 역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고고관은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발해실까지 시대순으로 구성됐지만 고려시대 이후 유물은 한길실, 금석문실, 왕가 국가실 등 주제별로 전시돼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주제별 전시체제를 시대별 전시체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준비해 온 끝에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시품 중 수월관음도(고려 14세기, 보물 제 1286호, 우학문화재단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실 전시품 중 지장사왕도(고려 14세기, 보물 제 1048호, 호림박물관 소장)

(水月觀音圖, 우학문화재단 소장)와 '지장사왕도(地藏十王圖, 호림박물관 소장)' 등 국보 5건, 보물 18건이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통일신라·발해실도 기존보다 면적과 유물 수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통일신라실은 기존의 명품 위주 전시를 탈피해 황복사 사리기 등 90건 120여 점의 유물이 △왕권의 성장 △불국토 △왕경문화 △지방문화 △바다(해상왕국)의 주제별로 전시됐다. 복제품이 다수였던 발해실은 러시아 연

에 고려실 등을 신설·개편했다.

1325㎡ 면적으로 신설된 고려실은 고려1실(후삼국 통일과 문벌귀족의 시대, 고려2실(대의관계, 무신정권과 고려의 정선문화), 고려3실(원의 간섭과 새로운 모색)로 나뉘어 총 759점의 문화재가 전시됐다.

특히 고려실에는 경원 여진문자비, 황산대첩비명탁본 등이 최초로 공개되는 것을 비롯해 국내에 드물게 전하는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

해주 출토 발해유물을 중심으로 발해 불상 등 실물유물의 110여 점으로 바뀌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상설전시개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금급자중심 전시'에서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을 활용한 '수요자중심 전시'로 전환을 시도한 첫 성과"라며 "내년에는 조선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송광사 문화재 디지털화

## 성보박물관 추진... 전남대 도서관 웹서비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서와 고문서 등 문화재를 디지털화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제43호인 '고려고종제서(高麗高宗制書)'와 보물 제572호로 1281년 원오 국사(圓悟國師)가 작성한 노비문서(奴婢文書), 2004년 천왕문(天王門) 해체 때 복장에서 출토된 '묘법연화경전술(妙法蓮華經續述)'을 비롯해 구산·인암 스님이 기증한 전적, 수도암에서 이관한 고문헌 등 국보와 보물을 다수 포함한 5500여 점의 문화재가 소장돼있다.

전남대 도서관은 성보박물관 이 소장한 자료를 사진 등 디지털 작업을 통해 연말부터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웹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가 디지털화되면 호남지역 불교연구를 비롯해 고려시대 서울경제, 지방사 회구조, 고려와 원나라의 역사적 관계 고찰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학술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했던 고문헌이 이번 기회에 디지털자료화 돼 불교학과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초등생 눈높이에 맞춘 사천왕사

## 국립경주부, 초등생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통일신라시대 으뜸가는 호국사찰이었던 경주 사천왕사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초등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7월 31일, 8월 7일과 14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떠나는 사천왕사'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 30분~5시 진행되며, '사천왕사' 특별전 관람과 가족단위 체험활동, 발굴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천왕사 터의 대표적인 출토품인 녹유소조상 편 등을 상상해 그림으로 완성해보고, 퍼즐을 통해 사천왕상을 결합해 보는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

이 예상된다.

경주박물관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천왕사 발굴조사로 확인된 녹유소조상의 위치와 배치상태를 익히는 한편, 이전의 가림배치와 다른 사천왕사가 람배치의 특징 등을 강의와 견학을 통해 학습할 예정"이라며 "사천왕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감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떠나는 사천왕사' 행사 참여는 경주 박물관 홈페이지(gyeongju.museum.go.kr) '이달의 행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신청가능하다. 행사 전 주 화요일부터 초등학생을 포함한 15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54)740-7541

조동섭 기자

# 불서 6종 2009 우수학술도서 선정

## 문광부 10개 분야서 349종 발표

불교학연구지원위원회가 지원·출간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등 불교 관련 도서 6종이 '2009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는 7월 16일, 종교 철학 예술 등 10개 분야에서 2009 우수학

술도서 349종을 선정·발표했다.

불교학 관련 종교분야에서는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씨아이알)을 비롯해 <붓다의 일일>에 관한 연구(민족사), <일본불교사 근대>(동국대 출판부), <고려 말 선사의 미학>(불광출판사)가

이 선정됐다. 예술과 역사분야에서는 각각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학연문화사)와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경인문화사)가 뽑혔다.

한편,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는 문광부가 1100만원 상당 도서를 구입해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병영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을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범패 · 작법무 -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09년 8월 6일 목요일